

## 조선을 알아야 한다

남달리 탐구심이 강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수많은 책들을 읽으시였다.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조국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칠골 창덕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때에도 조국과 인민을 알기 위해 정력적으로 배우고 탐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방학이나 일요일이면 자주 만경대에 오시여 고향집에서 밤을 밝히시며 꾸준히 학습하시였다.

10대초엽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신 도서들은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 책들이였다.

신문, 잡지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도서들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폭넓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쌓으시였고 사회정치적식견도 넓혀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은 그때 벌써 온 세상을 통채로 안으신 위인이시였다.